

■ 회원사 동향

LG産電(株), 중국 대련에 대규모 종합 생산단지 준공

LG産電(株)(代表:李鍾秀)는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대련 경제기술개발구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 종합생산단지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대지 5만평, 연건평 2만평 규모로 건설된 대련 공장은 가동 초기에는 승강기, 배전반, 몰드변압기, 진공차단기 등 선진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4개 전략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2천년까지 점차 생산 품목을 늘려 대규모 종합생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LG산전은 대련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장이 위치한 동북지역에 집중 공급해 초기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에 중국 최대 시장인 화북지역을 공략, 2천년에 5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LG산전은 향후 생산제품을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국

가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전자식 안정기는 동남아시아 판매와 함께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미국, 유럽시장에도 공급되며, 2~3년 후에는 한국으로의 역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대련공장은 향후 LG산전의 2005년·해외 매출 목표인 67억달러(5조 2천억원) 가운데 36%인 24억달러(1조 9천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총 4천만달러를 투자하였으나, 점차 투자 규모를 확대, 2000년까지 약 1억4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총 11개법인 25개 분공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산 기지로는 대규모 종합생산단지로 조성될 대련공장외에 5개 공장을 추가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모습을 갖추갈 계획이다.

LG電線(株), 네트워크사업 대폭 강화

LG電線(株)(代表:權煥久)의 네트워크 부문이 조직과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사무실도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시내 중심가의 LG 역전빌딩으로 이전하는 등 네트워크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LG전선은 LAN(근거리통신망), CATV, 무선

통신 등 네트워크 부문의 경우 제조업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전선사업 성격과 사업환경이 전혀 달라 차별화된 사업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사업群으로 독립시켜 사옥 이전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LG전선은 '80년대부터 국내에 LAN을 최초로 보급하고 국제통합 전산망, 사법부 전산망 등 대규모 국가 기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발히 영업 활동을 펼쳐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업 환경이 네트워크 컨설팅, 설계, 디자인 등 엔지니어링의 토달 솔루션화로 급격히 진전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사는 또 지난 8월, 미국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ODS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

고, 플레인트리, 입실론, 아카시아 등 각 분야의 선진업체와 잇다른 제휴를 통해 공공기관 등 특수 목적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국내 네트워크 시장 환경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사옥 이전과 조직이 모두 정비되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大慶電機製作所, 교류 저속 동기모터 개발

大慶電機製作所(代表: 金榮振)는 2년간 20억 원을 들여 연구한 끝에 회전속도가 기존 4극 3상 유도전동기의 1천8백rpm보다 훨씬 낮은 62,1백 9,1백71rpm인 저속모터 3종을 개발 완료하고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모터는 유도전동방식이 아닌 동기전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속도가 정확하고 적은 전력으로도 기존 유도모터의 20배까지 토크(회전력)를 낼 수 있는게 특징이다.

또 토크를 임의로 설정, 작동할 수 있을뿐 아니

라 부하가 많이 걸려도 슬립현상이 없이 정속운동을 하고 과부하시에도 모터가 손상되지 않는다.

이밖에 위치제어가 가능하고 높은 토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어박스가 필요 없으며 기존 고가의 서보모터를 대체할 수 있는 모터다.

한편, 동사는 출력이 0.25마력에서 10마력까지 낼 수 있는 저속모터를 생산, 본격 판매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0.1마력에서 1백마력급까지 모터 개발폭을 확대, 수요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東佑電機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東佑電機工業(株)(代表: 金沿洙)가 최근 주력 생산품인 MOF(계기용변압변류기), CT(변류기), PT(계기용변압기)에 대해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인증원으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번 ISO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제

품 및 서비스의 질 제고는 물론 신제품개발 및 수출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9년 설립돼 동종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하는 동우전기는 변성기기 및 에폭시 절연물 제조전문업체로서 특히 에폭시 몰드형 변성기기에서는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이번 동우전기의 ISO 인증으로 국내 전체 MOF 제조업체 15개사 가운데 ISO 인증 획득업체는 동우전기를 비롯해 삼능전기(주), 삼능전기

제작소, 삼흥중전기공업, 영화산업전기제작소, 중원전기공업(가나다순) 등 6개사로 늘어났다.

三興重電機器工業(株), ISO 9001 인증 획득

三興重電機器工業(株)(代表: 趙亨紀) 천안공장은 최근 한국능률협회 한국품질인증원으로부터 피뢰기, COS, 파워퓨즈 등 전 생산품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배전기자재 종합제조업체인 삼흥은 천안공장의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은 올들어 폴리머피뢰기 등

신제품 생산라인을 완벽해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시점에서 달성한 것으로 대고객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사는 제1공장인 이천공장이 지난 '96년 10월 MOF등 변성기기, 고장구간개폐기, 가스개폐기 등 전 생산품목에 대해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일진산전, 초고압 전력케이블 수원공장 준공

최근 일진산전(代表理事: 許鎭奎)이 지상 106m의 초고압 전력케이블 수원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초고압 전력케이블 공장'은 일진그룹이 총 45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1995년 12월 일진산업단지내에 있는 5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7,000평의 초고압등과 지하 7m, 지상 106m의 초고층 타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공장의 설비는 핀란드의 노끼야에서 시험설비는 스위스의 헤프리스등 세계 최고의 메이커로부터 도입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초고압케이블에 대한 생산, 시공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일본의 후루까와 유럽의 브루그케이블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과 기술제휴를 맺고 기술자 및

기능공 확보는 물론 기술제휴선에 기술연수등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진산전은 일진그룹 계열사중 하나로 지난 1994년 4월 자본금 140억원에 설립되어 그해 대지 5만평, 건평 2,700평, 투자비 150억원 규모의 특고압전력케이블 공장을 착공하고 본격적인 전력케이블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765kv 가공 송전선 및 절연전선과 중저압케이블, 초고압전력케이블 등을 주요 생산품목으로 올해 530억엔을 매출목표로 잡고 있는 일진산전은, 이번 공장 준공으로 초고압케이블을 銅量년 7,000톤의 규모 생산량을 자랑하게 되었으며, 초고압케이블은 일진의 매출증대에도 상당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